

청와대 사랑채 하반기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 개막

- 9. 16.~12. 31. 섬·들·산 지형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 조명
- 지난 6월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에 더해 3특 심층 문화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정광렬)과 함께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기획전시 '섬·들·산 솟아오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4일에 개막한 5극 3특 문화콘텐츠 상설 전시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12. 31.)'에 이어 '케이-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3특'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그 뿌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먼저 개막한 상설 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온 다채로운 문화와 오늘날의 '케이-컬처'를 폭넓게 소개한다면, 이번 기획전은 '그 지역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섬, 들, 산이라는 서로 다른 지형과 생태환경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진과 영상, 기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와대 사랑채 1층 기념품점 옆 공간도 도심 속에서 지역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관람객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어 온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창작자가 해석한 제주·전북·강원 '3특' 문화콘텐츠 순차 소개

이번 전시에서는 '3특'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와 기획자 등이 전시에 직접 참여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지역 내부의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9월 16일에 첫선을 보이는 제주 전시에는 콘텐츠 그룹 제주상회, 오두제, 제주도좋아 등 제주 지역 브랜드와 김승환, 박훈 등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한다. 이어 10월 14일에는 전북, 11월 11일에는 강원의 콘텐츠를 더해 전시를 순차적으로 확장한다. 12월 2일부터는 세 지역의 문화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종합 특별전을 선보이고, 지역 관계자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현장 교류대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상설전시관의 5극 권역별 문화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전국의 지역문화를 더욱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 정기 공연과 주말 특별공연, 지역문화예술 체험 행사 등 진행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는 ‘문화요일’ 정기 공연이 펼쳐진다. 하반기 공연은 각 지역이 추천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전시에서 소개하는 지역문화를 공연예술로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9월 19일에는 제주 기획전 개막 기념 특별공연으로 추다혜 음악인이 제주굿과 무가에 담긴 기원과 위로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선보이고, 9월 30일 정기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예술단체 사단법인 마로가 무대에 오른다. 이 밖에도 한국 전통의 색과 공예,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체험행사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청와대 사랑채’ 누리집(<https://cwdsarangchae.kr>)과 ‘팔색찬란-청와대사랑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주와 전북, 강원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가꾸어 온 삶과 문화가 오늘날 ‘케이-컬처’를 이루는 소중한 뿌리가 되었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매력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팔색찬란 기획전 ‘섬·들·산 솟아오르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	책임자	사무관	김상아 (044-203-2654)
		담당자	주무관	김사라 (044-203-2657)



붙임

팔색찬란 기획전 ‘섬 · 들 · 산 솟아오르다’ 포스터

